

여수단지 CO₂ 누출 “안개현상”

C화학, 저장고 밸브 고장으로 ... 주변지역 안개 현상으로 혼잡

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산화탄소(CO₂) 누출 사고가 발생해 주변지역이 혼잡을 빚었다.

12월23일 오전 11시5분 경 전라남도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C화학이 보관중이던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누출 되는 바람에 주변에 안개 현상이 발생해 혼잡을 빚고 있다.

C화학은 “이산화탄소 저장고의 밸브가 고장나 저장고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일부 누출됐다”고 설명했다.

또 드라이아이스 원료로 쓰이는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고 연소 가능성도 거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.

C화학은 밸브 수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2/24>